

콜롬비아, 낙농업계 유럽과의 자유무역협정 결사 반대

콜롬비아 낙농업계가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앞두고 전국 128개 중소도시에서 대대적인 시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결사적으로 반대운동을 펼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특히 이들 낙농업계는 엄청난 수출보조금을 받고 있는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40만 콜롬비아 낙농가들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일부 대기업 낙농가만 살아남게 할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대 운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낙농업계의 주장에 대해 콜롬비아 정부는 낙농업계가 피해를 입는 것은 확실하지만 담배와 커피업계는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다며 협정 체결전 낙농가들에게 특별지원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득하고 있다. 한편 콜롬비아 정부는 유럽연합과 9개월간의 협상 끝에 자유무역협상을 지난 3월 마치고 비준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colombiareports.com 5월18일자)

베트남, 사료가격 인상으로 낙농가 폐업 속출

베트남 호지민시 인근 낙농가들이 금년들어 7차례나 인상된 사료가격으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농민연합회가 발표하였다. 이 협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25kg 사료용 쌀겨 한포에 수개월전까지 21만5천동(화폐단위)이었으나 현재는 24만5천동으로 25%이상 올랐으며, 유업체들이 유대를 올려주지 않아 낙농가들은 우유 1kg 생산에 8천1백동을 지출하고 있으나 유대로는 7천에서 7천2백동을 받아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특히 이 단체는 유업체들이 낙농가들로부터 우유 1kg에 7천동을 받아 시장에 팔 때는 2만8천동을 받아 엄청난 이득을 남긴다며 낙농가들이 낮은 수익으로 낙농을 포기하면 업체들도 공급 기반을 잃게 될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생산비 증가로 금년도에만 호지민시 인근에서 6천여 낙농가가 폐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vietnamnet.vn/biz 5월18일자)

호주, 농가유대 유제품 가격 표시제 도입 검토

호주 상원이 유업계의 가격 경쟁력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모든 유제품에 농가 유대는 물론 생산자와 유통업체가 받는 비용을 비율로 표시하는 가격 표시제 시행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내 생산성 강화위원회 의장이 주도하는 이 같은 움직임은 특히 호주 상거래 관련 법안중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여러 가지 조항들을 재 논의할것을 촉구하며 18가지 제안을 제출하였는데 이중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를 발의한 상원은 이 같은 제도 시행시 소비자들에게 유제품 가격에 대한 정확한 유통 단계의 비용 비율을 알려 농가의 유대를 지속적으로 낮추려는 시도를 줄여줄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최근 호주 낙농지대인 타스마니아 지역에서는 지속적인 유대 인하 압력으로 낙농가들이 유업체에 이용을 당한다는 불만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www.abc.net.au 5월13일자)

미국, 국제 유제품협회 정책 로비에 15만불 지출

미국 최대 유업체인 닌 푸드사등이 참여하고 있는 미국내 유제품 관련 협력단체인 국제 유제품협회가 금년 1/4분기중 사업관련 정책 로비에 15만천불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유제품의 안전성, 영양 정책, 대외 교역, 유통등에 관한 정책반영에 주로 쓰여진 이같은 자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지출한 16만5천불에 비해 축소된 규모이며 작년 4/4분기에 집행된 22만5천불에 비해서는 10만불이 줄어든 규모로 알려졌다. 이같은 로비 자금은 주로 의회에 집중적으로 쓰여지나 식품의약청, 연방무역위원회, 농무성, 미국 무역대표부는 물론 미국 대통령 비서실등에도 쓰여지는 것으로 알려졌다.(www.businessweek.com 5월 13일자) ☉